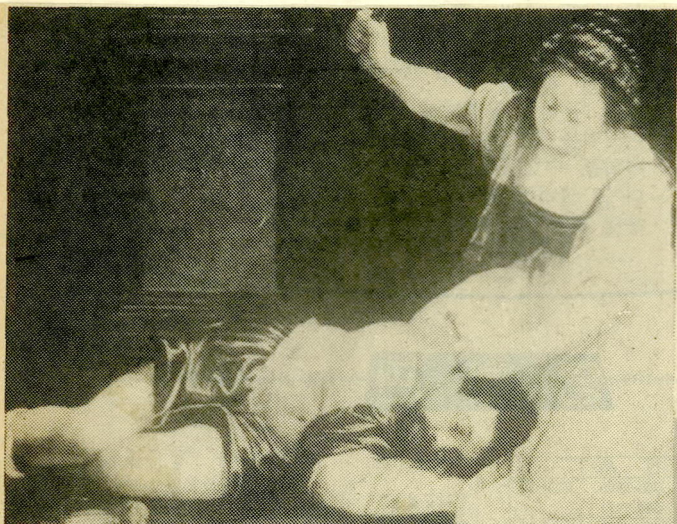




91. 8.18

최근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17세기 여성화가 아르테미샤의 <야엘과 시스라>.

그림으로 성폭행 남성 고발

17C 이탈리아 여성화가 뒤늦게 주목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그림으로 표현한 17세기 이탈리아의 여성화가 아르테미샤 젤릴레시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구미 미술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작품만으로 이뤄진 전시회가 처음인 데다 작품의 강한 페미니즘적 성격이 오늘날의 관점으로도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미

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근호는 '칼보다 더 강한 붓'이란 제목으로 그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아르테미샤의 강렬하고 복수심에 가득찬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한둘이나마 알아둘 필요가 있다. 17세기초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매우 진보적인 여성이었다.

아르테미샤는 워낙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여서 때때로 집 주변을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길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견습생

인 아고스티노 타시가 그의 방에서 그를 강간했을 때 견습생들은 그가 타시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그러나 당시 18살이었던 아르테미샤는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고 그의 아버지는 타시를 법원에 고소했다. 타시가 마침내 유죄 판결을 받아 플로렌스로 이주한 그는 그곳에서 예술적 격정으로 자신의 '악마들'을 내쫓기 시작했다.

그는 누드화와 성화들도 계속 그렸지만, <야엘과 시스라>처럼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 폭력적인 보복을 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들도 그렸다. 그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딧>은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스승마저 떨게 만들 만한 것이었다. 종종 작가 자신처럼 보이는 그의 여주인공들이 복수할 때 드러내는 자기 확신은 무척이나 냉정한 것이었다.